

'즐거운 골프'와 더불어 '즐거운 기부'

정읍 내장산 골프&리조트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골프대회

즐거운 골프와 더불어 더욱더 즐거운 기부를 실천하는 '정읍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가 최근 내장산 골프&리조트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불우이웃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배우 최재성, 안재모, 이종원, 이경진, 배도환, 조은숙 등 평소 골프를 즐기는 국내 유명 연예인 20여 명과 초청 인사 60여 명이 참석해 사랑의 나눔을 위한 대결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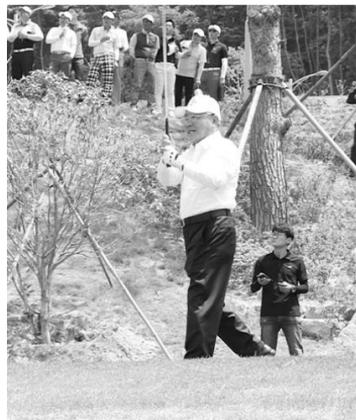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스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배우 배도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유진섭 시장의 축사와 시타식을 시작으로 20타으로 구성해 샷전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가 끝나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기부금과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김호석 회장은 "불우이웃을 돕는 좋은 일에 많은 연예인과 정읍 시민들이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대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은 도움 주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 지역 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이웃을 위해 잘 쓰이도록 하겠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즐거운 골프와 더불어 더욱더 즐거운 기부를 실천하는 '정읍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가 최근 내장산 골프&리조트에서 열렸다.



정읍시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 골프&리조트는 내장산의 9봉 중 하나인 망해봉을 등지고 드넓은 용산저수지를 바라보는 배산임수의 경관을 자랑하며 91만3,884㎡ 부지에 18홀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2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나 전국의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내장산 골프&리조트는 KBS 방송 제작진 정읍 두루두루 둘러보기 코스, CJ 헬로 불매트크 정읍시장편 제작 코스, KBS 도음 김용욱 선생 '녹두밭에 피어난 촛불' 출연진 명품 방문 코스 등으로 소개되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 유일 글로벌 마인드 개벽대학 발돋움' | 원광대 개교 73주년 기념식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개교 73주년 기념식을 원광학원 허종규 이사장과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후 2시 교내 송산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15일 개교기념일에 하루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30년·20년 연공서 및 공로상, 교육 업적상을 비롯해 강의우수상, 학술공로상을 시상하고, 학생 표창과 함께 졸업의 원의화회장, 임해근 연철의료재단 이사장, 김강호 (주)오디텍 대표 등 외부인사 8명에게 대학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해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특히 수원형 열차 안에서 심폐소생술로 50대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과학관 이승준 선생과 간경화로 투병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한 중앙도서관 김경현 선생이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대학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귀감을 보여 특별상을 받았다.

박맹수 총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을 위해 봉사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 원광대

학교의 창학(創學) 이념"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도화와 과학, 동양의 오랜 인문주의와 서양 근대의 합리주의가 어우러지는 창조적인 학문이 요청되는 시점"이라며, "새로운 학문으로 새로운 일꾼을 양성하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원광대의 새로운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거듭나야 하고, 이 새로운 학문을 '개벽학(開闢學)'으로 정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깨어있는 정신과 비판하는 이성, 열려있는 마음과 도전하는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가 일원도덕(一圓道德)의 경지이며, 일원도덕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개벽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개벽되면 세상이 개벽되고, 개벽세상은 차별도 없고 혐오도 없으며 소외도 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라며, "일원도덕을 구현하기 위한 개벽학의 정립을 모색하고, 무에서 유를 일구어내셨던 선진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제2의 창학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예언을 받들어 대학 교훈이 '지덕겸수, 도의실천'으로 됐을 것"이라는 허종규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원광가족 모두 새로운 믿음과 각오로써 학교 교훈이 지향하는 길로 함께 나아가자"며, "글 속에만 있는 죽은 교훈이 아니고, 학생들이 향하는 가르침으로써 만의 교훈이 아닌 교직원들이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는 생생양동하는 교훈이 되어 원광대학교가 세계 유일의 진정한 도덕대학으로 우뚝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1946년 유일학림(唯一學林)으로 시작해 1971년 종합대학교로 승격, 오늘에 이르고 있는 원광대는 지난해 12월 제13대 박맹수 총장 취임 이래 '사람 중심의 소통, 세계로 향하는 변화, 글로벌 마인드로 도약'을 기치로 새로운 시대를 디자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남원소방서, 덕과면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공동 훈련

남원소방서는 14일 남원시 덕과면의 한국음료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공동 및 다수사상자 대응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에는 13개 기관·단체에서 148명이 참여하고 차량 및 중장비 32대가 동원되어, 지진으로 공장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유해화확물질 누출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됐다.

특히, 재난발생 초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피해 최소화,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지휘체계 단일화와 안정적인 초기대응 시스템구축, 인명구조 최우선 등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절차, 운영요원의 임무숙지, 인명구조 및 수습능력배양, 통제단 업무이양 및 지휘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점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조용주 소방서장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기관별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소방서, 종합운동장서 '소방안전교육 체험교실' 운영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4일부터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아 찾아오는 관람객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교육 체험교실'을 익산종합운동장 체험부스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 체험교실은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맞아 익산종합운동장을 찾아가는 온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험교실 프로그램에는 3개의 체험코너에서 방화복 입기 체험, 소소심 플러시(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교실, 오늘은 내가 소방관 '소화기 체험' 등 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행사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불 나면 대피먼저' 강조 교육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진행하고 체험교실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익산=정인천 기자

무진장소방서, 조곡마을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4일 장수군 계남면 소재 조곡마을에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화재없는 안전마을'이란 농촌지역 주택화재 예방과 마을단위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소방서와 일거리, 주거 밀집 지역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등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써,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해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진장소방서는 2010년도부터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26개의 마을이 지정돼 있으며, 계남면 조곡마을은 2016년도에 지정된 안전마을이다.

이번, 계남면 조곡마을에서는 ▲전 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설치(기설치 세대 제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가능 여부 확인·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한, 조곡마을 내 주거시설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기초소방시설 사용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는 소방안전복지서비스를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보건소, 구강 보건교육 등 실시

정읍시가 이달부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강 보건사업은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보건소는 치아우식증(충치)을 사전예방하고 구강 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구강 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안내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또 어린이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도 지도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불소도포 시술은 치아의 내산성(산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을 높여줘 40~70%의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치아를 강하게 하고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해 치아우식증을 사전 예방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릴 때의 구강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며 "지속적인 불소도포와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섬 주민들을 한방 의료봉사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의료서비스 사각지역에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한방 의료봉사를 펼쳤다.

LX는 지난 13일 비영리법인 햇살마루와 함께 부안군 위도면을 방문해 섬 주민들을 대상, 한 무료 한방 의료봉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안군 위도면은 적포항에서 1시간가량 배로 이동해야 만날 수 있는 섬 지역으로 평소 한방의료 혜택이 어려운 지역이다.

봉사는 LX 직원, 한의사,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기초검진, 침술, 부항치료, 주파수 도수치료 등 다양한 의료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촬영'을 진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창학 사장은 "이번 한방 의료봉사가 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블랙야크 김제점, 독거노인 '야크효(孝)박스' 김제시에 기탁

블랙야크 김제점(대표 최봉규)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4일 독거노인을 위해 '야크효(孝)박스' 50세트(200만원 상당)를 김제시에 기탁하였다.

이 후원은 블랙야크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6번째로 진행해왔던 사업으로 그간 지역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

효박스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들이 모자, 리본, 미역, 통조림들 실생활에 필요한 9종의 선물이 담겨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통해 5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최봉규 김제점 대표는 "작은정성을 상자에 담았지만 독거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해피트레인 행사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권혁진)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14일 익산시 지역아동 30명을 초청하여 '미래의 주역들과 떠나는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피트레인은 전북본부 차량분야 참사랑회의 자체성금 지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상자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족의 달을 맞아 평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아동들에게 좋은 추억과 경험을 선사했다.

/익산=정인천 기자